

신학적 빈곤의
파악과
“한국적 신학”의 시도

“빈곤”(貧困)은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그것이 어떤 영역-경제, 문화, 신학-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신학적 빈곤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적 성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학적 빈곤”이란 무엇인가?

“신학적 빈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논의자들 사이에 콘센서스(consensus)를 도출하려면, “신학적”이라는 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신학적”은 “신학에 관한/관계되는”의 의미이므로, 결국 이 논의는 “신학”의 의미가 무엇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신학”(theology)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좁은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가리킨다. 이것은 조직 신학의 연구 분야(locus) 중 첫 번째인 “신론”(doctrine of God)을 말한다.¹⁾ 이러한 “신론”은 다른 분야-“인간론”, “기독교론”, “교회론” 등-와 구별하기 위하여 신론 자체(theology proper)²⁾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둘째,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개별 과목이나 그런 과목들의 총칭과 연관된다. 전통적으로는 주경 신학(Exegetical Theology), 역사 신학(Historical Theology), 조직 신학(Systematic Theology), 실천 신학(Practical Theology)의 네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³⁾ 이런 의미의 신학에 어떤 (및 몇 가지) 분과가 포함되는지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⁴⁾

셋째,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기독 신앙에 입각하여 어떤 특정 이슈나 사안, 주제를 성찰하는 일로 이해된다.⁵⁾ 이런 용례의 신학은 “신학”

앞에 성찰 대상의 이름(명칭)이 붙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로 “언약 신학,” “해방 신학,” “생태 신학,” “십자가 신학”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으로 신학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신학의 빈곤이 이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의미에서 신학적 빈곤이란, 조직 신학의 다른 분야와 달리 “신론”의 연구가 빈약하다는 평가로 귀착되는데 이는 한국의 현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두 번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현재 한국에는 개신교만 50여 곳의 신학 기관이 있고 신학교마다 각종 신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이 방면에서도 신학적 빈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의미는 어떠한가? 필자는 이 방면의 신학적 빈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이자 한국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나라/민족/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우리 특유의 (그리고 우리만의) 상황, 문제점, 현실을 겪고 있다. 마땅히 이런 사안에 대한 신학적 성찰⁶⁾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해결을 겨냥한 어떤 몸짓도 쉽사리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신학적 빈곤의 모습을 가능한 한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송인규 (前)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M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나의 주 나의 하나님』,『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복음과 지성』,『고립된 성』,『잃어버린 자이를 찾아서』(이상 MF),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오늘날 신학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

오늘날 “한국적 신학”이 필요한 것은 일반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새로운 의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새롭다”는 것은 이전에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둔 것이다. (i) 과거와 달리 의식의 구성 요소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 (ii) 이 의식이 과거에 없던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발현시킨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처럼 변화된 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성숙을 꾀하려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 작업이 다급하다.

(1) 새로운 의식의 발전과 세 가지 형성 요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의식 체계와 구조가 1970-80년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다 절감하고 인정하는 바이다. 분명한 것은 지난 30~40년 동안 우리의 성(性) 의식·기독교 인식·재물관·공동체 개념·자녀에 대한 기대치·생명에 대한 관점·직장의 선택 기준·권위관·통일의 염원 등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실상을 몽땅 그려 “새로운 의식의 발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발전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서로 다른—그러나 종종 함께 맞물려 있고 중첩적으로 작용하는—형성 요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첫째, 한국인과 그리스도인의 심성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무교적 성향이 깔려 있다. 샤머니즘(shamanism) 혹은 무교(巫敎)라 불리는 종교적 습속(習俗)에는 피화기복(被禍祈福)의 방침, 신적 대상을 달랠으로써 조종하려는 욕구, 신과 인간 사이 증보자로서의 샤만에 대한 이해, 제의(祭儀)/의식 위주의 종교 생활 등이 포함된다. 기성세대는 과거의 종교 활동이나 생활 습관으로부터 무교적 성향을 배웠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세대 속에 혼합주의적으로 잠입한 무교적 특징이나 면모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교적 편향성을 배태하게 된다.

둘째, 한국인과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영향 때문에 전환기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한국 사회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공동주의(communitarianism)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 교류, 여행, 거주지의 변동, 매체의 유입 등 다양한 수단에 힘입어 점차 서구적 개인주의에 물들기 시작했다. 특히 88올림픽을 치르며 전환의 현상이 뚜렷해졌고, 그 후 젊은이 세대를 필두로 하여 “표현적 개인주의”(expressive individualism)⁷⁾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개인주의적 경향은 무엇보다도 자아의 인식과 관련해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성에 대한 태도, 여가와 향락 추구, 돈의 사용이나 시간 관리 등의 사안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또 한국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정·학교·교회·직장 등)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휩쓸리게 되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관계는 정말 놀랄 만한 변화를 겪었다. 가족의 개념, 부부 사이의 역할, 부모-자녀 사이의 책임 등은 종래의 공동주의적 관점을 탈피하여 급속히 개인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전향하기 시작했다. 가치관의 극명한 변화를 이 정도로 선명하게 의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국이 겪고 있는 국내외적 위기 상황 때문에 불안과 긴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불안과 긴장의 상태로 몰아넣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구성원들 사이의 위화감과 양극화 현상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점점 더 악

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실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을 민족 전체가 끌어안는 사회적 통합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지역감정의 상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치유되고 안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여전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상태이다.

우리 민족의 고통이자 동시에 국제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이다. 남북의 분단 및 대치 상황은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적 비극과 아픔을 연출하고 있다. 남북통일을 민족의 과제로 당연시하는 고령의 세대든 통일 비용을 따지며 머뭇거리는 젊은 세대든, 한국인에게 분단의 현실은 특유의 집단적 신경증(collective neurosis)을 유발해 왔다. 통일 전략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시각의 차이·의견의 양극화 현상이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한국인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난관은 경제 문제이다. 1997년 말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인들의 경제 관념과 소유 의식은 병적이라고 할 정도의 강박성을 띠게 되었다. 미국을 강타한 2008년 금융 사태 또한 전(全) 지구적 연쇄 파동의 잠재적 위협이 되었다. 한국인들과 한국 교회는 이렇게 고질적인 국내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세계적 경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의식에 노출되어 있다.

(2)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 나타나는 결과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형성 요인 (및 이로 인한 “새로운 의식”)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과 교회의 생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까? 한 가지 씩 살펴보자.

첫째, 무교적 성향은 과거와 비슷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각각시킬 공산이 크다. 기복(祈福) 신앙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여러 형태-헌금·헌신·교회 봉사 등

과 연관된 동기 문제, 기도 응답·하나님과의 교제·상급관에 있어서의 오해나 왜곡 등—로 둔갑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 비슷한 대칭 현상으로 “가계의 저주”⁸⁾식 형별관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크고 작은 재난이나 역경을 잡신(雜神)들의 괴팍한 보복 행위—이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무교적 패러디와 편견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로 간주하는 것⁹⁾이다. 꿈·“계시”·입신·신유에 대한 강박적 집착, 교회당·목사에 대한 구약식 이해 [성전·제사장], 영성에 대한 반(反) 지성적 접근 등도 무교적 성향의 직·간접적 표출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 신학적 성찰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개인주의적 관점/시각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사안이라서 자아, 가정, 교회의 영역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자아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릇된 자아관의 문제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활동/현상/사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다. 오늘날 자아관의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이라는 것—자아를 죄의 부패성과 분리시킨 채 그 잠재력과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과거 비관주의적/금욕주의적 자아관도 문제였지만, 오늘날의 낙관주의적 자아관도 과거의 오류 못지않게 비뚤어져 있다. 이것이 불건전한 쾌락과 짝을 지어 온갖 쾌락주의—음식 쾌락주의, 문화 쾌락주의, 성 쾌락주의 등—을 낳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성의 영역만 하더라도 인터넷 성중독, 혼전 성행위, 동거 등이 일상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부각되는 사안 중에 “권위”의 문제가 있다. 과거 공동주의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던 시절에는 대체로 권위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당연히 수장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풍조를 따르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더 이상 종래의 우두머리들을 전과 같은 순종적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리하여 부모-자녀 관계, 부부 관계, 목회자-교우 관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지금까지

도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부모에 대한 재정적 기여(cf. 딤페전 5:8)는 어디까지인가? 부모 역시 과거처럼 자녀를 속박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영역에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자녀에 대한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 부부 중 반드시 남편에게만 권위가 있는 걸까? 남편이 재정이나 지력 혹은 사회적 지위 등이 열등한 경우에도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까? 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분란이 적지 않다. 많은 사역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졌다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교우들이 개별적 개인주의나 가족적 개인주의에 치우치면서 점차 교회 활동이나 교회에 대한 봉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회 활동 참여 및 봉사 이외에 재정적 헌납 면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헌신 정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때문에 생긴 이 많은 문제들이 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신학의 빈곤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겠는가?!

셋째,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하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한국인들 사이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위화감과 양극화 현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감정의 지속적 해소 방안, 사회적 소외층—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탈북자 등—에 대한 개인적·구조적 배려, 심리적·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조치 등은 계속해서 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남북통일은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한 성찰 대상이어야 한다.¹⁰⁾ 이와 관련하여 통일의 다양한 모델/패턴 연구, 통일 비용에 대한 추산과 대처 방안, 통일 이후의 사회적 화합을 위한 조치 등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담론에 연결되는 정치적·외교적·군사적·안보적 차원의 의제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특히 개인의 경제 의식과 재물관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 노후 대책의 마련, 재테크, 부동산 투매(投賣), 주식과 증권 등의 주제/사안에 대해서도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적 신학을 실행하는 길

필자가 “한국적 신학”이라고 언급한 신학적 성찰 작업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70년대에는 “토착화 신학”¹¹⁾이라는 명칭 아래 신학적 시도가 있었고, 또 1980년대에는 “민중 신학”¹²⁾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적 신학을 모색하기도 했다.¹³⁾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신학자들이 대체로 급진적 신학의 기수들이었고, 한국 교회 내에서 별다른 호응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그저 특정 지도자들의 창의적 발상이나 시대 친화적 유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사라졌다.

그렇다고 현재 필자에게 한국적 신학을 실행할 뵤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합당치 않은 방침을 취함으로써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수주의적/복음주의적 신학의 바탕 위에서 분석·평가하고, 공동체의 상황이나 시대적 적실성을 지닌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들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교적 성향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앙¹⁴⁾을 강조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개인주의·개체성·공동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과 사역을 연관시키며, 한국의 국내외적 상황과 연관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신앙적 회복,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세상의 공공 분야를 하나님 나라 및 선교적 신학(missional theology)¹⁵⁾의 관점에 비추어 조망하여 대처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학자들은 신학 분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 분야-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문학, 철학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특히 그런 전공 분야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한국적 신학을 수행하는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단 첫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자. 그래야 이런 방면에서 신학적 빈곤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는가?! 

1) Louis Berkhof,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9 reprint), p. 75.
 2)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Introduc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p. 32.
 3) Friedrich Schleiermacher, *Brief Outline on the Study of Theology*, trans. Terrence N. Tice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66), p. 20.
 4) 어떤 이는 (i)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 (ii) 역사 신학, (iii) 조직 신학, (iv) 도덕 신학(Moral Theology) 혹은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s), (v) 실천 혹은 응용 신학(Practical or Applied Theology)을 거론하는가 하면 [Albert L. Truesdal, Jr., “Theology,” *Beacon Dictionary of Theology*, ed. Richard S. Taylor (Kansas City, Missouri: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3), p. 520]. 또 어떤 이는 (i) 성경 신학, (ii) 조직 신학, (iii) 역사 신학, (iv) 교의 신학(Dogmatic Theology), (v) 현대 신학(Contemporary Theology)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Paul Enns, *The Moody Handbook of Theology*, rev. and expanded (Chicago: Moody Publishers, 2014), pp. 7-8].
 5) David F. Wells, “Theology,” *New Dictionary of Theology*, eds. Sinclair B. Ferguson et al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88), pp. 680-81.
 6)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 작업을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할지 논의를 하거나 명칭과 관련하여 구체적 제안을 하거나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신학적 노력을 가리켜 잠정적으로나마 “한국적 신학”이라 명하고자 한다.
 7) 이것은 개인주의의 한 갈래인데, 그 내용인즉 각 개인은 개인만의 느낌과 직관이 있어서 이것을 표현할 때 개체성(individuality)이 실현되기 때문에 어떤 반대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Robert N. Bellah et al, *Habits of the He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27, 33-35, 143].
 8) “가계의 저주”는 원래 영미의 오순절파 지도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인데 [Derek Prince, *Blessing or Curse* (Grand Rapids, Michigan, 1990); Marilyn Hickey, *Break the Generation Curse* (Denver, Colorado: Marilyn Hickey Ministries, 1999)]. 오히려 한국에서 호황을 더 누렸던 것 같다 [이윤호, “가계의 복과 저주 전장에서 승리하라”(서울: 베다니출판사, 2001)].
 9) 이와 관련하여, 송인규, “교회에는 왜 여성들이 더 많을까? 여성, 남성, 종교성,” *한국 교회와 여성*, 이덕주 외 지음 (서울: 한국교회탐구센터 및 VP, 2013), pp. 180-82를 참조하라.
 10)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적 성찰과 시도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총신대학 부설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편, “분단 상황과 한국 교회”(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남북 나눔 연구 위원회 편, “민족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서울: 두란노, 1996); 한화룡, “4대 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김선욱 외, “평화와 반평화”(용인: 프리칭이카데미, 2013)].
 11) 초기의 예로서, 윤성범, “기독교와 한국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와 유동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등이 있다.
 12) 대표적인 저술로서, 안병무, “민중 신학 이야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가 있다.
 13) 한국 성서학 연구소 편, “민중적 신학의 모색”(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2)을 보라.
 14) 서양 신학자의 설명이지만 의미 심장한 내용으로서, 제임스 패커, 정옥배 옮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개정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pp. 51-66을 참조하라.
 15) 이는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1909-1998)의 선교 신학에 영감을 얻어 발전시킨 개념인데, 호시자 된 책으로 Darrel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가 있다.